



즉시 배포용: 2019년 1월 1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미국을 선도하는 뉴욕의 총기 규제법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 주의회의 새로운 회기 개시 **100**일 안에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결의

자신에게나 타인에게나 위협의 징후를 보이는 사람들의 총기 구입 또는 소유를 금지시키는 붉은 깃발 법안(Red Flag Bill)의 통과 결의

*반자동 총기를 자동화기로 만들어 주는 범프 스택(Bump Stock)의 판매를 금지하고, 총기 구매자의 신원확인 대기 기간을 **3**일에서 **10**일로 연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총기 폭력을 근절하고 미국을 선도하는 뉴욕의 총기 규제법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 주의회의 새로운 회기 개시 **100**일 안에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결의했습니다. 첫째, 주지사는 자신에게나 타인에게나 위협의 징후를 보이는 사람들이 모든 종류의 총기를 구입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막는 극한의 위험 보호 명령 법안(extreme risk protection order bill)이라고도 알려진 붉은 깃발 법안(Red Flag Bill)의 통과를 결의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뉴욕의 총기 규제법을 토대로 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뉴욕은 법원의 개입을 통해 학교에서 발생하는 총격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교사와 교직원들의 자율권을 허용하는 미국 최초의 주가 될 것입니다. 또한 주지사는 반자동 총기를 자동화기로 만들어 주는 범프 스택(Bump Stock)의 판매를 금지하고, 총기 구매자의 신원확인 대기 기간을 **3**일에서 **10**일로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총기 폭력의 재앙은 우리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연방 정부가 총기 안전 법안을 통과시키는 조치를 취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뉴욕은 이미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 안전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법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고 우리 지역사회와 학교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함께 협력하여 우리는 이 상식적인 법안을 통과시켜서 총기 폭력이 설 자리가 더 이상 우리 주나 미국에는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워싱턴에 보낼 것입니다.”

파크랜드 총격 사건으로 사망한 롱아일랜드 주민인 **Scott Beigel** 이 다닌
고등학교에서 **2019**년 정의 어젠다(2019 Justice Agenda) 계획 발표의 일환으로

진행한 연설 중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해 여름 **Cuomo** 주지사님과 함께 붉은 깃발 법안(**Red Flag Bill**)과 같은 상식적인 총기 안전 조치를 취하기 위해, 뉴욕주 전 지역의 학교를 시찰했습니다. 우리는 총기 폭력을 근절하고 총기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만드는 법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가 시민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은 무의미한 총기 폭력을 막고 인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붉은 깃발 법안(**Red Flag Bill**)

법원이 범죄 혐의 또는 가정 내 범죄로 기소되지 않을 경우, 폭력 행위처럼 위험성을 내보이거나,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가할 정도로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총기류를 한시적으로 압류하기 위해 법원에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이 현재 뉴욕주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의 개입을 통해 학교 총격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 교사와 교직원들에게 자율권을 부여하는 주는 미국에 없습니다.

이 법은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에서 발생한 학교 총기 난사 사건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장하면서, 합법적인 절차없이 총기를 가질 수 없도록 필요한 모든 절차상의 안전 장치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총기 난사 사건의 경우, 총기 난사범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위험한 인물이었지만 치명적인 총기류를 구입하고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었다고 복수의 출처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분석에 따르면 총기 난사 사건의 모든 가해자 중 절반 이상이 총격을 가하기 전에 경고 신호를 보입니다. 이 경우에, 극한의 위험 보호 명령(**Extreme Risk Protection Order**)은 셀 수 없이 많이 발생했던 불필요한 죽음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지난해 6월 **Red Flag Gun Protection Bill**(붉은 깃발 총기 보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뉴욕주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을 개시하면서 위험 징후가 있는 사람들이 총기를 소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안을 미리 개정했습니다. 이 캠페인에는 이 법안과 기타 상식적인 총기 개혁 법을 지지하는 학생, 교사, 교직원들과의 연대를 유지하기 위해 뉴욕주 전 지역의 학교를 방문하는 일련의 버스 여행이 포함되었습니다.

범프 스탱(**Bump Stock**) 금지

58 명이 살해당한 2017년 라스베가스 총격 난사 사건으로 범프 스탱(**Bump Stock**)이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범프 스탱(**Bump Stock**)은 반자동 무기에 부착하여 자동화기처럼 발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장치입니다. 사냥꾼이나 스포츠맨은 범프 스탱(**Bump Stock**)을 합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장치를 이용할 경우 발사를 예측할 수 없고 총기 발사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장치는 뉴욕주에서 계속 판매할 수 없습니다.

신원 조회 유예 기간(Background Check Waiting Period) 연장

Cuomo 주지사는 또한 국립 범죄 기록 신원 조회 실시간 시스템(National Instant Criminal Background Check System, NICS)을 통해 총기 구입을 즉시 승인받지 못한 개인의 대기 기간을 10 일로 정하는 법률을 이전에 도입했습니다. 현재의 연방법은 총기 판매업자가 총기를 판매하기 전에 잠재적인 구매자에 대한 국립 범죄 기록 신원 조회 실시간 시스템(NICS)으로 신원 조회를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시스템은 즉시 “진행”, “거부”, “지연” 등 세 가지 가능한 통보 결과 중 한 가지를 제공합니다. “지연” 응답인 경우, 미국 연방 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이 3 일을 초과하여 이 개인을 계속 조사한다고 해도, 판매 업체는 판매가 완료되기 전에 반드시 3 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때때로, 잠재적인 구매자가 사실상 부적격하다고 결정되었을 때까지, 개인은 3 일간의 유예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미 총기 판매를 마쳤습니다. 유예 기간을 10 일로 연장할 경우, 신원 조회를 완료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총기 구매 및 소유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총기를 사서 소유할 수 있도록 입법상의 활동에 주력할 것입니다.

Gabrielle Giffords 전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기 폭력으로부터 인명을 구하는 일은 올바른 일을 할 용기를 지닌 Andrew Cuomo 주지사님과 같은 지도자들이 수행해야 합니다. 주지사님은 총기 관련 로비에 따르는 것을 거부하고, 뉴욕을 이 공중 안전의 위협에 맞서는 리더로 만든 정책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한 기록은 뉴욕의 학교, 거리, 교회, 이웃을 더 잘 보호하게 될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뉴욕주 의원들의 지원 속에서 주지사님이 새롭게 노력을 기울이면서 오늘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Cuomo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뉴욕 지역사회를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새로운 법안을 위한 싸움에서 주지사님과 연대할 것입니다.”

Brian Kavanagh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Cuomo 주지사님과 함께 행정부 전체를 대상으로 뉴욕 안전법(NY SAFE Act) 및 기타 상식적인 총기 폭력 예방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집니다. 워싱턴의 공화당 의원들이 우리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계속 거부함에 따라, Cuomo 주지사님, 상원 및 하원의 제 동료 민주당 의원들과 저는 인명을 구하기 위해 뉴욕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오랫동안 추구해 온 수단인, 극한의 위험 보호 명령(Extreme Risk Protection Order)을 제정하는 데 강력히 지지해 주신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법안의 최종안을 작성하여, 이 중요한 법안이 새로운 주의회 회기 중에 신속하게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Jo Anne Simon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격 난사 사건들이 아주 흔한 일이 되면서, 우리 지역사회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는 것이 뉴욕을 위해 대단히 중요합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총기 안전에 대한 확고한 공약은 미국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총기 규제를 지속하겠다는 주지사님의 계속된 공약에 박수를 보냅니다. 다가오는 주의회 회기에서 붉은 깃발법(Red Flag Law)으로도 알려진 극한의 위험 보호 명령(Extreme Risk Protection Order)을 통과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지사님께서 이 법안에 서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Patricia Fahy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 및 총기와 관련된 비극적인 사고들에 대해 연방 정부가 도외시하고 있는 반면에 뉴욕은 총기 안전 규제의 길을 계속 주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총기 규제에 대한 상식적인 비전은 전미 총기 협회(National Rifle Association, NRA)에 장악되어 있는 Trump 행정부와는 현저하게 다른 입장을 보입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감사드리며, 뉴욕주에서 우리가 이 주의회 회기 중에 추진할 수 있는 기타 중요한 총기 규제 조치들 중에서 영구적으로 범프 스탁(Bump Stock)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Amy Paulin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주는 보다 강력한 총기 안전 법안을 원하는 요구에 답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이 발생한 학교 총격 사건을 미국민이 목격한 다음 해를 맞이하여, 뉴욕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상식적인 중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 해에 발생한 다수의 총기 난사 사건들은 처음부터 총을 소유해서는 안되는 사람들이 저지른 사건들입니다. Cuomo 주지사님은 총기 구입이 너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절차여서 안된다는 점을 인식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총기 구입 대기 기간을 연장하라는 주지사님의 측구에 박수를 보냅니다.”

Cuomo 주지사의 재임 기간 동안, 뉴욕은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자 및 위험한 정신 질환자의 총기를 압류하고, 개인용 총기 판매에 대한 신원 조회를 보장하며, 대용량 탄창 금지 및 공격용 무기를 금지하고, 불법적인 총기 사용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탄약 및 총기 단속법 일명 세이프법(SAFE Act)을 포함하여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가정 폭력과 치명적인 총기 폭력 사이의 연결성을 제거하는 법률을 최근에 제정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총기 관련 폭력 근절(Gun Involved Violence Elimination, GIVE) 프로그램 및 SNUG 프로그램 등과 같이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은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총기 폭력 감소 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는 총기와 관련된 난사 사건 및 살인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법 집행 기관과 지역사회 기반 단체들을 모두 지원하기 위해 공조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연방 정부가 계속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직면한 총기 폭력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에 “총기 안전을 강화하는 주(States for Gun Safety)” 연합의 출범을 이끌었습니다. 뉴저지주, 코네티컷주, 로드 아일랜드주 등과 함께 뉴욕주는 (1) 불법 총기류를 추적하고 몰수하며, (2) 총기 구매 또는 총기 소지를 금지당한 개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3) 미국 최초의 지역별 총기 폭력 연구 컨소시엄을 만들기 위한 협약에 합의했습니다. 메사추세츠주, 델라웨어주, 푸에르토리코는 또한 이제 3,500 만 명이 넘는 미국인을 대표하는 이 연합에 가입했습니다. 또한 Cuomo 주지사는 전미 총기 협회(NRA)를 브랜드로 한 “캐리 가드(Carry Guard)” 보험 프로그램의 판매를 금지하기 위한 싸움을 그 누구보다 일찍 전미 총기 협회(NRA)와 벌이고 있습니다. 이 보험 프로그램은 신체적 상해를 초래하는 의도적인 범죄 행위를 저지른 총기 소유자에게 불법 보험을 제공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